

5분 자유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 2월 17일)

**주민과 소통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김상수 의원
(중2, 좌2, 송정동)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해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함이다.

해운대그린시티, 미포, 청사포, 송정 지역의 도시관리

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반영해 지역 발전은 물론 관광 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개선되길 촉구한다.



원문 보기

**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



유점자 의원
(중2, 좌2, 송정동)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책금과 자립수당 지원 확대,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 등 자립 준비 청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원문 보기

**재활용을 넘어 자원이 순환되는
생활 속 순환경제 실현을**



최은영 의원
(중2, 좌2, 송정동)

천혜의 자연환경인 해운대와 송정 바다, 그리고 장산 구립공원은 해운대의 관광자원이자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자연자원이며, 잘 보전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우리 구도 재활용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

어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독려해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원문 보기

**서민들 냉가슴 만드는
긴급난방비 지급을 촉구한다**



이상곤 의원
(재송1동)

전기, 가스와 기타 연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19, 전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 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지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보조

를 맞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듯이 구민들을 위해 신속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원문 보기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폐널티 부활
기준인건비 재규제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
(송민우 의원 외 19명)



원문 보기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박성식 의원 외 19명)



원문 보기

해운대구의회는 2월 17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준인건비 재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2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징행 폐널티가 5년 만에 부활해 2025년부터 반영된다고 한다. 이에 해운대구는 기준인건비 폐널티 규제 폐지, 기준인건비를 집행기관과 의회로 분리, 정책지원관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2월 17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하는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사기구의 장 임용, 감사담당자 임용)이 광역의회만 적용돼 공공감사법 개정안에 기초의회를 추가하고 감사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정원에 반영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